



#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5 Issue | Vol. 59

###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코넥타도' 시행규칙 문안, 다음 격전지로 — page 1-2
- 필리핀 경제 성장, 하반기 둔화 전망 — page 2
- 수출업계, 미국 반도체 관세로 'PDP 목표 달성 불가능' 전망 — page 3
- SEC, 상장사에 "투자자에 관련 정보 전면 공개" 촉구 — page 3-4
- 대한항공, 역대 최대 규모 보잉 항공기 주문 — page 4-5
- 더 많은 지방 정부 단위, 경제특구 개발에 관심 표명 — page 5-6
- '필리핀을 핀테크 허브로 만드는 데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다' — page 6-7

###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8

### 코넥타도' 시행규칙 문안, 다음 격전지로

August 27,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의 아홉 개 주요 경제 단체들이 '코넥타adong 피노이 법안'의 시행세칙(IRR) 마련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규정이 필리핀 기업들이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외국상공회의소 연합(Joint Foreign Chambers, JFC), EU-ASEAN 비즈니스 카운슬(EUABC), 필리핀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협회(Ibpap), 미-ASEAN 비즈니스 카운슬(USABC)은 '코넥타adong 피노이 법안'의 제정을 환영한다”고 이들 경제 단체는 화요일 성명에서 밝혔다.

이들 경제 단체는 이번 조치를 “인터넷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필리핀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아세안이 역내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리핀의 디지털 생태계를 견고히 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의 성공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롭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시행세칙(IRR)의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필리핀이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홉 개 경제 단체는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이번 법률이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JFC는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 상공회의소와 Pamuri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EU-ABC는 아세안 지역 내에서 유럽 기업을 대표하는 기구다.

Ibpap는 필리핀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산업을 대표하는 업계 협회이자 옹호 단체다.

한편, US-ABC는 전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해 18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을 대표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다양한 분야에 “중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일요일, 말라카냥궁은 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형 통신사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코넥타adong 피노이 법안’이 자동으로 법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마르코스 행정부의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신규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조항 가운데 하나는 송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의회의 프랜차이즈 승인(congressional franchise)이나 공공편익필요증명서(Certificate of Public Convenience and Necessity)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통신위원회(NTC)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고, 신규 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기사: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25/konektadong-pinoy-bill-has-lapsed-into-law-says-palace/>)

[Cont. page 2]

## 코네크타도' 시행규칙 문안, 다음 격전지로

[Cont. from page 1]

지난 6월, 경제 단체, 외국 상공회의소, 기술 연합, 공공 부문 기관,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35명의 서명자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의 통과가 “인터넷 접근을 민주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현 행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25/35-groups-to-pbbm-sign-konektao-bill/>)

그러나 법안 반대 측은 이러한 민주화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경고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 공백, 사이버 보안 인증에 대해 지나치게 긴 유예 기간을 둔 점, 그리고 규제 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의회 프랜차이즈 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27/irr-text-is-next-battleground-in-konektao/>

## 필리핀 경제 성장, 하반기 둔화 전망

August 27,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US trade policies are expected to dampen global investor sentiment and curb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STAR / File

### 세계 경제 여건 악화 속에

마닐라, 필리핀 —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필리핀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리서치·분석 기관 BMI가 밝혔다.

피치 솔루션스 산하의 이 기관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필리핀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다소 낮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필리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4%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필리핀의 대미 수출품에는 1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2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최신 관세율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했던 17% 관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BMI는 수정된 관세율로 인해 중기적으로 수출량이 0.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 4월 전망했던 1.4%포인트 감소보다 상당히 개선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I는 하반기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리핀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 시점이 되면 미국의 관세가 전면 시행되고, 그로 인한 세계 교역에 대한 과급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 이라고 BMI는 설명했다.

금리가 정점에서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MI는 미국의 불안정한 무역정책이 글로벌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단기간 내 의미 있는 투자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고 BMI는 덧붙였다.

한편, 중앙은행 금융위원회(Monetary Board)는 지난 6월 1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5.25%로 조정했다.

또한 BMI는 가계 소비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물량은 민간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표인데, 여전히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도 교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신뢰가 더욱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BMI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설정한 2025년 성장 목표치 5.5~6.5%보다 낮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필리핀 경제는 평균 5.4% 성장했다.

내년에 BMI는 필리핀이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7년에도 같은 속도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6.4%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BMI의 2026~202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6% 성장 목표 범위 안에 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27/2468270/philippines-growth-seen-slowing-2nd-half>

## 수출업계, 미국 반도체 관세로 ‘PDP 목표 달성 불가능’ 전망

August 24,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수출자총연합(Philexport)은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필리핀 개발계획(PDP)에 설정된 수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수출개발계획(PEDP)은 달성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 낮은 PDP 목표로 조정했다”고 셰르히오 오르티스-루이스 주니어(Philexport 회장)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가 따르는 목표는 그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목표를 바꾸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조차 달성하기 어렵다. 미국으로의 전자제품 수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출개발계획(PEDP)에 따르면, 2025년 필리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1,6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는 PDP 목표치는 당초 1,134억 2,000만 달러였으며, 중기 PDP 업데이트에서는 1,154억 9,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달 들어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반도체 생산을 부흥시키기 위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일부 예외가 있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 우리는 전자산업이 우리를 구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요 경쟁국들의 관세가 더 낮은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반도체 수출이 관세에서 면제되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에 제공할 카드가 거의 없어 필리핀이 협상에서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지정학적 입장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이웃 국가들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 20년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원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이웃 국가는 연구개발, 정책, 관측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나 수출 전시회가 열려도 우리 수출업자들은 참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 부스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진지하게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관세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아세안, 한국, 일본과의 FTA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약 4개 협정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외에도 필리핀 수출의 잠재적 주요 시장으로 중국 본토 및 일본을 꼽았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8/24/693426/exporters-see-lower-pdp-goal-out-of-reach-with-us-chip-tariff/>*



STOCK PHOTO | Image by Freepik

## SEC, 상장사에 “투자자에 관련 정보 전면 공개” 촉구

August 26, 2025 | Joan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화요일, 상장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상기시켰다.

이는 지난 8월 21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국적 허위 진술 혐의로 글로벌 페로니켈 홀딩스(Global Ferronickel Holdings Inc.)의 조세프 시(Joseph Sy) 회장이 체포된 사건을 위원회가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시 회장이 상장회사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SEC는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자사 관할권 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할 것”이라고 SEC는 화요일 성명에서 밝혔다.

[Cont. page 4]

## SEC, 상장사에 “투자자에 관련 정보 전면 공개” 촉구

[Cont. from page 3]

SEC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IRR) 제17.1.1조와 필리핀 증권거래소(PSE)의 통합 상장 및 공시 규정을 인용하며, 상장 기업은 회사 및 임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E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가 취할 모든 조치는 특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증진하는 방향에 맞출 것” 이라며, “투자 대중의 이익을 수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위원회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니켈산업협회(PNIA)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시 회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그가 “출입국관리국(BI)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현재도 불법 구금 상태에 있다” 고 주장했다.

협회는 시 회장이 필리핀 시민임을 강조하며, 이는 “필리핀 당국, 특히 BI가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한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권을 두 차례 인정했던 BI가 이번에는 불법 체포와 구금의 주체가 된 것은 심각하게 우려스러우며 법적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합법적 근거도 없이, 그리고 BI의 관할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단순히 외국인일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계속된 구금은 중대한 불의이자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필리핀이 광업 분야에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고 경쟁력 있는 광물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시점에 기업 및 투자 커뮤니티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어떤 필리핀 시민도 이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우리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기관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7318](https://www.pna.gov.ph/articles/1257318)

## 대한항공, 역대 최대 규모 보잉 항공기 주문

August 27, 2025 | By Reuters | The Manila Times

워싱턴 D.C. — 대한항공은 월요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보잉 항공기 103대와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및 정비 계약을 포함한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The Manila Times®**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대한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약 365억 달러 상당의 보잉 787, 777, 737 기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거래는 월요일 오전 로이터통신이 처음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또 같은 날 GE와 137억 달러 규모의 엔진 구매 및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 동안 보잉은 주요 항공기 주문을 연이어 수주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여러 나라들이 상당한 규모의 보잉 항공기 주문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최근 미국 내 보잉 공장을 방문한 뒤, 이번 사상 최대 규모의 주문이 대한항공이 미국, 중남미 지역으로 노선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월요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조 회장은 신규 주문 103대 중 절반가량은 737 맥스 10 기종이고, 나머지는 777-9와 787 기종이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보잉 항공기의 약 80%는 기존 보유 기체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잉이 과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회사는 여전히 보잉에 신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부는 이번 보잉 계약 규모가 362억 달러이며, 여기에 GE 계약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보잉은 이번 계약이 대한항공이 지난해 인수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운영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nt. page 5]

## 대한항공, 역대 최대 규모 보잉 항공기 주문

[Cont. from page 4]

“대한항공이 더 큰 통합 항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공기 기단 중 하나를 통해 항공사의 성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보잉 민간항공기 부문 사장 겸 CEO 스테파니 포프(Stephanie Pope)는 말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은 이번 대규모 보잉·GE 계약이 미국 항공우주산업 수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항공기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춘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 행정부는 미국인들을 위한 첨단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역외 이전 기업의 본국 복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루트닉 장관은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항공이 곧 보잉과 GE의 신규 항공기 엔진 관련 32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보잉으로부터 777-9 항공기 20대와 787-10 항공기 20대를 주문하고, 추가 10대 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규 주문은 그와 별개의 계약입니다.

대한항공은 1969년 국영 대한항공공사가 한국 대기업 한진칼에 인수되면서 설립되었으며, 글로벌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SkyTeam)의 창립 회원사이기도 합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8/27/business/foreign-business/korean-air-makes-airlines-biggest-ever-boeing-jet-order/2173791](https://www.manilatimes.net/2025/08/27/business/foreign-business/korean-air-makes-airlines-biggest-ever-boeing-jet-order/2173791)

## 더 많은 지방 정부 단위, 경제특구 개발에 관심 표명

August 24,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지방 정부 단위(LGU)들이 새로운 경제구역(에코존)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고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이 밝혔다.

PEZA 테레소 O. 팡가 청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나가시, 로스바뇨시, 산파블로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전국적으로 427개 운영 중인 경제구역(그리고 계속 증가 중인)에 새롭게 합류하게 될 이들 LGU들을 환영한다” 고 덧붙였다.

이번 주, 그는 PEZA가 케손주 산안드레스(135헥타르), 카마리네스수르주 팜플로나(60헥타르), 알바이주 리본(40헥타르)에 제안된 세 개의 에코존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세 개의 에코존은 비콜 및 본독 반도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라가이 만을 접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산안드레스, 파사카오, 판타오 항구 간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에코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필요한 원자재를 바지선을 통해 운송할 수 있어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항구들이 국내외 무역, 관광, 도서 간 교통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핀이 지역 내 최고 성과를 내는 경제국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LGU들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에코존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필리핀 경제는 에코존 내에서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내 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PEZA와 유치 LGU들이 협력하여 에코존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전국적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및 신성장 지역에 에코존이 조성됨에 따라 LGU들은 투자 코드를 제정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인적 자원, 인프라, 지역 공급망을 개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핵심 개혁들이 경쟁하는 LGU들이 에코존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수입, 일자리, 생계 및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Cont. page 6]

## 더 많은 지방 정부 단위, 경제특구 개발에 관심 표명

[Cont. from page 5]

“이미 입증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LGU)에 경제특구(에코존)가 조성되면 지역사회에 큰 혜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연계 및 보완적 중소기업(MSME), 서비스 기업, 운송 서비스 기회 등을 창출하게 되며, 각 에코존이 설립될 때마다 이러한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조사를 인용하며, PEZA는 상위 10위 안에 드는 실적 우수 LGU의 대부분이 에코존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에코존과 입주기업(locator companies)의 수가 많을수록, 에코존이 전혀 없는 LGU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습니다.” 라고 평가 씨는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임기 하에서 총 34개의 에코존이 선포되었으며, 이는 1,470억 페소 규모의 자본 투자를 차지합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8/24/693347/more-local-government-units-express-interest-in-ecozone-development/>

## ‘필리핀을 핀테크 허브로 만드는 데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다’

August 26,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필리핀을 핀테크 혁신 허브로 전환하는 데 복잡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방코 센트랄 응 필리피나스(BSP)가 밝혔다.

BSP의 엘리 M. 레몰로나 주지사는 지난 화요일 타기그시에서 열린 *마닐라 테크 서밋 2025* 연설에서, 모든 필리피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순한 해법이 핀테크 산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몰로나 주지사는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솔루션을 선호합니다. 또한 충격과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용성, 보안, 혁신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다.



BSP Governor Eli M. Remolona Jr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포용적 시스템 구축이라고 밝혔다. QR PH와 PalengQR PH를 통해 BSP는 비공식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QR PH와 PalengQR PH는 트라이시클 기사, 시장 상인, 사리사리 상점 등이 온라인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현금 거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했다. 고객들 또한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포용성과 더불어, 레몰로나 총재는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BSP는 사이버 회복력 계획(cyber resilience plan)을 마련했으며, ‘금융 계좌 사기 방지법(Afasa)’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사이트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몰로나 총재는 이러한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랜스유니언(TransUnion)이 발표한 최신 신용 인식 지수(Credit Perception Index, CPI)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은 전통 은행이나 온라인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에 접근할 때 여전히 \*\* ‘신뢰 문제’ \*\*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필리핀의 CPI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2024년 74점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트랜스유니언 필리핀의 피터 파울하버(Peter Faulhaber) 대표 겸 CEO는 전통 은행을 통한 거래의 보안 및 안전성이 소폭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프로세스가 아무리 좋거나 나쁘더라도, 이용자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의 상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대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레몰로나 총재는 금융 시스템의 지속적 혁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형 퇴직 계좌(PERA)와 같은 도구를 포함한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 등 스마트 기술을 의미한다.

BSP의 엘리 M. 레몰로나 주지사는 “BSP에서는 단순함을 추구한다. 우리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혁신을 선호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BSP만이 이 분야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핀테크 얼라이언스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여러분은 건설자이자 연결자, 혁신가다. 우리 금융 시스템을 미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Cont. page 7]

## ‘필리핀을 핀테크 허브로 만드는 데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다’

[Cont. from page 6]

같은 날 환영사에서 핀테크 얼라이언스 필리핀(Alliance.Ph)의 창립 회장 리토 빌라누에바는 “미래를 형성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임을 업계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빌라누에바 회장은 핀테크 얼라이언스가 ‘좋은 목적, 성장, 모두를 위한 혁신, 신뢰’를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이 선을 위해, 성장을 위해, 모두를 위해, 그리고 신뢰를 위해 작동할 때 단순히 혁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사회를 변혁시킨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혁신을 통해 변화하고, 기술과 함께 진화하며,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함께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을 위한 기술’은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사업과 같은 디지털 결재 플랫폼의 남용에 대해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원칙을 지키면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을 위한 기술’은 2033년까지 필리핀이 1조 달러 경제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목표를 뒷받침하는 솔루션을 창출하는 것이다.

빌라누에바 회장은 또한 ‘모두를 위한 기술’은 2028년까지 모든 필리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대담한 비전은 성인 인구의 80%가 디지털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소매 거래의 80%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접근에서 영향으로 나아가는 운동이다. 바로 2028년까지 80 대 80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빌라누에바는 신뢰를 위한 기술 구축이란 곧 정직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유럽연합(EU)의 불법자금 명단에서 필리핀이 제외된 것은 단순한 규정 준수(compliance)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QR PH,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 프로젝트 넥서스(Nexus), 프로젝트 아길라(Aguila) 등 필리핀 내 혁신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들은 넥서스 글로벌 페이먼트(NGP)를 설립해, 국경 간 실시간·안전한 결제를 위한 넥서스 체계를 운영·관리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BusinessMirror, 2025년 4월 3일](#))

한편 프로젝트 아길라는 BSP와 참여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험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가 대규모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기사: [BusinessMirror, 2024년 12월 5일](#))

빌라누에바는 “국내 금융범죄와 싸우는 것에서부터 아세안 무대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것까지, 이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필리핀의 모습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 우리는 미래의 승객(passengers)이 아니라 조종사(pilots)다”라고 말했다.

최근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핀테크(FinTech) 이용률은 91%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디지털 금융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핀테크 상품은 전자지갑(e-wallet)으로, 응답자의 77%가 이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그 뒤를 온라인 은행(51%), 디지털 결제 앱(47%)이 이었다.

트랜스유니온은 전체 인구의 35%가 전자지갑을 첫 번째 금융 상품으로 이용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은행 계좌(30%)를 처음 금융 상품으로 삼은 경우를 앞질렀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2012년생인 Z세대(Gen Z)의 47%와 1981년1996년생인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의 37%가 금융 생활을 전자지갑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반면, 1965년1980년생인 X세대(Gen X)와 1946년1964년생인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s)는 각각 40%, 34%로 은행 계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용 인식 측면에서 조사된 세 인구 집단 중 핀테크 이용자들이 2025년 가장 높은 CPI 점수(74점)를 기록했으며, 전반적인 신용 지식 수준(71%)도 가장 높아 일반 인구와 비(非)은행거래 인구(unbanked)를 모두 능가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26/making-phl-a-fintech-hub-wont-need-complicated-tech/>

#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HON. RALPH RECTO**  
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 PANELISTS, MODERATORS, AND PRESENTE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RICKY CARANDANG**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HEAD OF  
EXTERNAL AFFAIRS



**ELAINE COLLADO**  
COUNTRY DIRECTOR  
PHILIPPINES  
VRIENS & PARTNER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MARICAR BAUTISTA**  
SPOKESPERSON FOR  
BUSINESS  
INFRASTRUCTURE



**DR. ENRICO BASILIO**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ROSEMARIE RAFAEL**  
CHAIRPERSON & PRESIDENT  
AIRSPEED



**DR. DANI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MICHAEL ARCATOM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PAU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GRACE MIRANDILLA-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GKADA  
BROADBAND POLICY BRIEF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AFAEL ONGPIN**  
EXECUTIVE DIRECTOR  
MAKATI BUSINESS CLUB



**MONICA LORENZANA  
TRAJANO**  
VICE PRESIDENT FOR  
COMMERCIAL STRATEGY  
ABOITIZ INFRASTRUCTURAL  
ECONOMIC ESTATES



**RUBEN CAMBA**  
MANAGING DIRECTOR  
SOUTHEAST ASIA  
ACCORNA  
INFRASTRUCTURAS



**ENGR. EMMANUEL  
CAGUIMBAL**  
FOUNDER AND CEO  
XPERTO



##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http://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email us at [forum@arangkadaphilippines.com](mailto:forum@arangkadaphilippines.com).

[www.arangkadaphilippines.com](http://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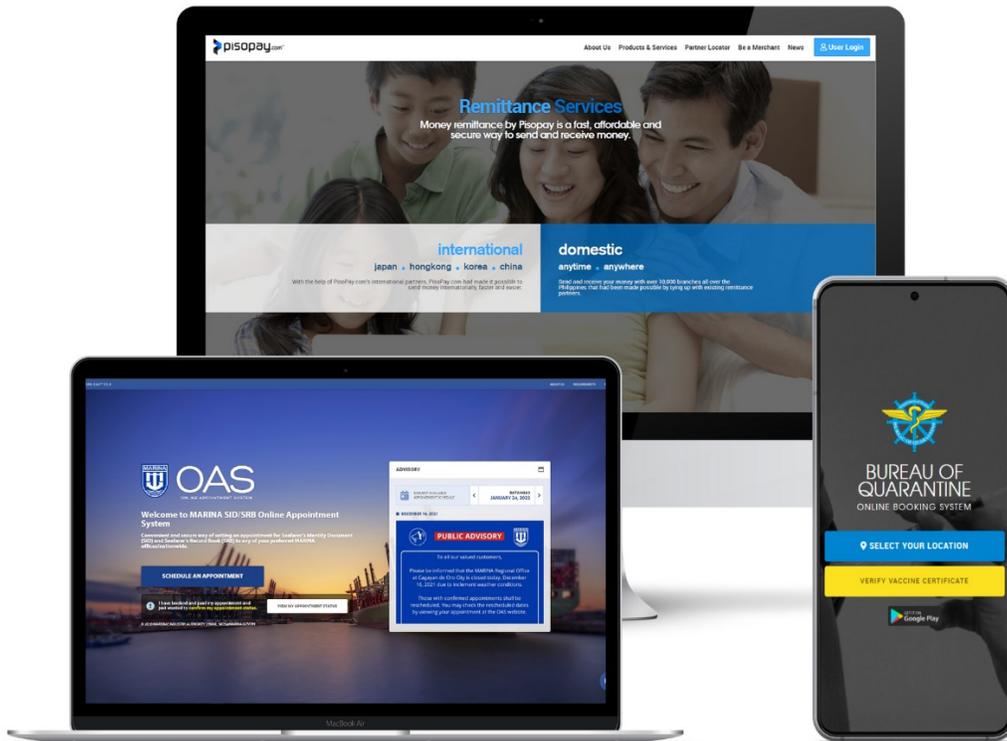
## ORGANIZ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mailto: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